

광주 4개 산단 조성 '순항'...미래 산업기반 구축

광주도시공사 산단 어디까지 왔나

남구 도점산단 입주희망기업 잇따라 한전 합작 '에너지밸리' 내달 착공 산·학·연 협력 일자리 창출 기대

광주도시공사가 광주 미래 기반시설인 산업단지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현대차의 광주 투자를 계기로 대기업의 진출이 이어지고, 한국전력, 전남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도 본 궤도에 오를 경우 광주의 산업지도가 급변할 것을 대비한 것이다.

광주 전략사업인 에너지 신산업 특화단지인 도시첨단산단과 에너지밸리 일반산단은 남구 압촌동과 지석동 일원에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연계한 배후단지로 개발한다. 광주시 북구, 광산구, 그리고 장성군 진원면, 남면 일원에 광주 연구개발특구로 조성되는 첨단3지구는 오는 2025년까지, 평동 3차 산단은 2019년 완공 예정이다.

이렇게 4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18조7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8만2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공사는 전망하고 있다.

◇72% 공정을 보이고 있는 남구 도점산단=남구 도시첨단산단과 에너지밸리 일반산단 조성사업은 광주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인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그 인근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선도도시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점산단의 면적은 48만5887㎡, 총사업비는 1332억원으로 2019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현재 72%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이 산업단지는 대전력 중전기 분야, 대용량 신재생 에너지 및 스마트그리드 등과 관련 있는 연구개발기관, 기업 등이 자리하게 된다.

한국전기연구원, LS산전(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에너지관련 연구원 및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그리고 입주를 희망하거나 문의하는 기업이 많아 당초 기업유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서측 평동산단, 동측 송암산단이 있고, 나주 빛가람혁신도시가 근거리에 자리해 있다.

1조796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4865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7월 착공하는 에너지밸리 일반산단=에너지밸리 일반산단은 남구 석정·지석·압촌·대지·칠석동 일원 사업면적 94만4000㎡에 297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올해 7월 착공해 202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과 함께 '빛가람 에너지밸리'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고압직류송전(HVDC),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에너지 신산업이 자리잡게 된다.

계획 대상지 총면적 중 산업시설용지는 전체의 36.7%인 34만6545㎡로 계획했다. 중소기업전용용지는 인접한 남구 도시첨단산단 내 중소기업전용용지와 연계되도록 했다.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3조 2229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 1만4524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시공사는 예상하고 있다.

◇조성비 1조원 이상 매머드급 첨단3지구=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는 북구 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장성군 진원면·남면 일대에 산업 및 연구시

설, 주거,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매머드급 프로젝트다. 부지 규모만 380만여㎡에 달하며 1조 217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조성한다.

단지는 산업시설용지(16.28%), 교육연구시설용지(16.14%), 주택건설용지(18.40%), 상업업무용지(2.30%), 공원녹지용지(16.15%), 기타공공시설용지(30.72%)로 구분된다.

정부연구개발특구인만큼 100대 국정과제인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국립심혈관센터 등의 부지로 제공된다.

하남산단, 본촌산단, 진곡산단, 장성 나노산단, 첨단1·2지구 산단 등 주요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고,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일반연구기관, 이공계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등 산·학·연이 함께 하고 있다.

첨단3지구는 광기반 융복합, 차세대전기, 친환경 자동차 부품 소재, 스마트케어기전 등 4가지 분야 특화산업의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것이 광주시의 방침이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행정 절차를 진행중이며, 향후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밟아 나갈 방침이다.

11조4884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 5만1772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친환경 지향하는 평동 3차 산단=평동3차 산단은 광산구 연산동, 옥동 일원에 117만8000㎡ 규모로 2442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친환경 산업단지 계획돼 전기와 전자, 기계, 금속, 자동차 제조업종이 입주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의 이전을 대비해 중소기업전용단지 7만5887㎡가 지정돼 있다.

지난해 3월에 착공해 오는 2019년 준공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72% 공정을 보이고 있는 남구 도시첨단산단의 조감도.

"지역발전 전인차 역할 하겠다"

유광중 광주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산단 조성·구도심 재생 등



광주도시공사가 광주 미래기반 구축이라는 공사의 사명을 위해 남구 도시첨단산단, 에너지밸리 일반산단, 첨단 3지구, 평동 3차 산단 등 4개의 핵심 산단을 조성중이다. 청년은 물론 지역민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부상하면서 공사는 일자리의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산단 만들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유광중(사진) 사장직무대행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공사의 업무를 ▲광주 미래기반 구축 ▲서민 주거복지 증진 ▲구도심 재생을 통한 균형발전 등 3가지로 정하고 착실하게 추진중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 취임 직후에는 서민 주거 문제에 집중했는데.

▲주거 양극화가 심각한 지역문제에 부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가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수준 높은 임대 아파트를 도시 곳곳에 공급해야 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도시재생은 물론 도시공동체 화합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4개 산단을 동시에 조성하고 있다.

▲공사가 지역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선 수준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산단 개발은 무엇보다 지역경제, 지역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수요를 염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국제사업이나 한국전력 등 굴지의 대기업과의 연계사업 등으로 추진하고

있어 기대한 것 이상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도시공사의 공공성 향상에 대한 기대가 크다.

▲공사는 기본적으로 공기업이다. 설립 취지에 맞게 공공성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앞으로 구도심 재생,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사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생각이다.

-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공사는 지역 발전의 주축이 돼 지역민이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발전의 견인차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가 도시첨단산단, 에너지밸리 일반산단, 첨단3지구, 평동 3차 산단 등 4개의 신규 산단을 조성중이다. 이들 산단은 2019년에서 2025년까지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다. 사진은 광주도시공사 사옥 전경(왼쪽)과 7월 착공하는 에너지밸리 일반산단의 조감도.

나주, 2층 주택, 매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번지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집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 시세 - ~~약 1000만원~~
 - 개인사정상 급매 - 8200만원
- H. 010-6834-7400

"전체"수리 했습니다

